

독서동아리 운영현황과 과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Reading Clubs: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Support

이 은 주(Eun-Ju Lee)*
정 하 영(Ha Young Jeong)**
윤 유 라(You-Ra Yo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독서동아리 운영전략 모색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A구 독서동아리 운영사례 분석 | |

요 약: 이 연구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된 독서동아리를 사례로 실제 운영현황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해보고,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독서동아리의 구성요건과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 독서동아리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원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3)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A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15개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사례연구

ABSTRACT: With social support for reading clubs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reading clubs, to investigate how useful policy support is, and to discuss the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vitalize the reading clubs in the future. To the end, this study intends (1) to investigate the composition of the reading club and the status of participation in the reading clubs, (2)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club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lub members, and identify the results and the meaning of support activities so far, and (3) to discuss strategies to vitalize reading clubs. The data for discussion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reading club members supported by a local government,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KEYWORDS: Reading Club, Book Club, Book Club Support Project, Local Government Support, Case Study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제1저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지방사서주사 (hyjung79@korea.kr)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yryoun@deu.ac.kr / ISNI 0000 0004 6098 169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0년 5월 5일 • 최초심사: 2020년 6월 1일 • 게재확장: 2020년 6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79-101,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79>]

I. 서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단편적인 정보에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의 연구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坂本一郎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활동을 통해 개인의 지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사고력 증진을 통해 창의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坂本一郎 1971, 267). 이와 더불어 개인의 독서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력 부족에서 오는 지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독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독서동아리'이다.

독서동아리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주제나 독서목록에 따라 정해진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이다. 흔히 독서동아리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모임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동아리 회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독서활동이 정서함량과 지식습득 위한 '개인적 독서'에서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수행하고 홀로 되새기는 '소유'의 독서에서 타인과 함께 나누는 '공유'의 독서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다양한 독후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독서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동아리의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령,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독서동아리 참여율을 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10).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추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는 2018년에 200여개, 2020년에 약 400여개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든든한 지원의 결과로, 2014년 약 1만개이던 독서동아리가 2018년에는 약 4만 여개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양적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4).

이처럼 독서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독서동아리에 대한 논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연령대들이 속한 독서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논의(안영이 2010; 임영환 2013; 황석순 2015 등)에서부터 특정 집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파악한 논의(방미영 2013; 이용준 2014), 독서동아리 활동 중에 수행되는 구체적인 행위(가령, 독서기록장쓰기)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와 관련한 논의(김혜진 2009; 조현행 2015)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상이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독서동아리 활동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면서 참가자의 인지과정 변화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서동아리 활동 시작단계에서부터 운영방식 및 활동 후 만족도 등과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적인 동아리 운영 실태조사는 물론 각종 지원에 대한 효과검증이 폭넓게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운영된 독서동아리를 사례로, 실제 운영현황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해보고,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독서동아리의 구성요건과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 독서동아리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므로써 지금까지의 성과와 지원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3)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대량 관찰이나 대표 표본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특징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영복 200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A지자체에서 1년간 지원한 15개의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실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온라인설문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일부 동아리를 대상으로 직접대면설문을 병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서동아리 개념과 운영 요건

독서동아리는 15명 내외의 일반대중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기회를 갖는 모임 혹은 활동을 지칭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22). 국외에서 book club, book discussion club, book group, reading group, reading club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독서동아리, 독서 클럽, 독서토론 동아리, 모듬 독서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¹⁾. 그러나 어떠한 용어로 칭하든지

1) 국내에서는 해당 용어들의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book club'과 'reading club'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 짓기도 한다. 2018년 Notaras에 따르면

간에 '회원들과 합의된 독서목록이나 주제'를 근간으로 '자율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독서와 다양한 독후활동(주로, 읽고 쓰고 토론하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개념을 함께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동일한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한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독서동아리는 읽은 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총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김라연 2007, 85). 이러한 가치는 독서동아리의 이론적 토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독서동아리는 미국의 Rosenblatt의 '독자반응이론'(reader-response theory)에 기초한다. 독자반응이론이란 도서를 의미의 완성된 구조로 여기지 않고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보이는 생각, 느낌, 감정 등의 반응을 중시한다(김민숙, 박성수 2015, 787). 이 이론에 따르면 독서란 독자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각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독자의 '곱씹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독서동아리 활동에서 읽고 토론하는 곱씹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책을 통한 의미형성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에 초석이 된 이론적 기반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인데, 이 이론은 학습자의 지식, 생각, 태도, 가치 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사고발달 과정에서 언어를 통한 교류의 기회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와 같은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독서동아리에 접목시켜보면 동아리 회원들은 단순히 동일한 도서를 함께 읽는 것만이 아니라 토론과정과 같은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구성하게 되고 언어를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결국 독서를 통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서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들이 필요한데, The Reading Agency에 따르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필요하다²⁾. 이 중 '회원'과 '콘텐츠', '공간'은 필수요소이며, 독서동아리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선택요소이다.

'book club'은 일정 기간 동안 동아리 회원들이 같은 책을 읽은 후 함께 모여 책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 반면, 'reading club'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침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도서관에서 모여 진행되는 활동을 지칭한다는 것이라 구분 짓고 있다. 또한 'book club'은 토론을 기반으로 하기에 10-12명 정도가 적절하며 동일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독서수준이어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reading club'은 60명 이상(혹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어린이와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독해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독서수준이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Notaras 2018)

2) <표 1>은 The Reading Agency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6 독서콘퍼런스 자료집에 실린 "공간에 대한 생각나눔: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안 공간 마련 및 활용방안" 발표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The Reading Agency 2004, 28-30; 오지은 2018, 120-121).

〈표 1〉 독서동아리 구성요소

요소		설명
필수요소	회원(reader)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독서활동을 함께 나누는 대상을 의미하며, 보통 15명 내외의 일반 대중으로 구성됨
	콘텐츠(contents)	회원들이 읽는 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ex. 모여 읽기(책 소개), 모여 듣기(낭독), 감상 나누기, 토론하기, 창작하기, 봉사하기 등)까지 포함함
	공간(space)	독서활동을 하는 장소
선택요소	리더(leader)	독서동아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독서동아리 회원 혹은 사서, 외부 전문 강사가 될 수도 있음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외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각 요소의 개념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회원의 경우, 국내에서는 15명 내외를 독서동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삼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6-10명, 혹은 10-12명 정도를 적절한 인원수로 보고 있다(Newcastle Region Library).

둘째, 콘텐츠는 두 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협의의 콘텐츠는 회원들이 함께 읽는 도서를 지칭한다. 흔히, 일부의 독서동아리에서는 로맨스 또는 공포와 같은 특정 장르, 특정 작가, 시리즈를 주요 콘텐츠로 삼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문학 비평이나 상대적으로 덜 학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를 선정한다(Lombardi 2019). 이와 더불어 광의의 콘텐츠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까지를 아우르는데, 함께 읽은 책을 기반으로 나누는 다양한 생각, 의견 등을 포함한다.

셋째, 공간은 회원들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시작된 독서동아리는 종종 회원들의 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독서동아리는 도서관 커뮤니티 룸이나 커피숍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Lombardi 2019).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Parker의 말처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요소이다(Hoffert 2019). 그러나 독서동아리담당 사서들은 리더가 독서동아리 활동의 촉진자(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와 저자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며,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 강의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Hoffert 2019).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원활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구성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콘텐츠’와 ‘공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독서동아리 활동의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을까. 국내의 전반적인 독서동아리 참여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2018)』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본다³⁾.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1.7%(조사 인원 6,000명 중 100명)와 학생의 13.0%(조사 인원 3,126명 중 406명)가 1년간(2018.10~2019.9) 독서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리고 지난 8년간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성인의 독서동아리 참여 비율은 약 1%~3%대, 학생은 2011년을 제외하고 10%대에 머물고 있다.

〈표 2〉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단위 : %)

조사년도	성인	학생
2011	1.3	23.7
2013	3.4	13.1
2015	1.8	12.8
2017	3.0	13.6
2019	1.7	13.0

이들이 주로 참여한 독서동아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직장(36.1%)과 공공도서관(23.8%) 등의 기관에서 주도하는 독서동아리에 주로 참여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66.8%), 공공도서관의 독서동아리(18.4%)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에는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독서동아리의 실태와 향후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한 분석 자료이다. 본 연구의 2.2장에서 기술한 〈표 2〉, 〈표 3〉, 〈표 4〉, 〈표 5〉는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에 쓰인 통계기술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표 3〉 참여해 본 독서동아리의 유형 (중복응답)

	성인		학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장 또는 학교 독서동아리	36	36.1	271	66.8
공공도서관 등 기관에서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23	23.3	74	18.4
지역(동네)독서 동아리	18	18.4	25	6.3
온라인 독서동아리	14	14.2	26	6.4
서점 독서 동아리	3	2.9	17	4.1
기타	5	5.5	28	7.0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지원을 받은 경험이 60% 정도였으며, 성인의 경우 정부 및 시도/지자체(37.3%),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학교)(72.2%)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다(〈표 4〉 참조).

〈표 4〉 독서동아리 지원 경험 유무 및 지원 기관 (중복응답)

	지원 경험 유무				지원 기관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있음	1119	61.8	1337	61.1	정부 및 시도/지자체	675	37.3	278	12.7
					교육청(학교)	520	28.7	1574	72.2
					소속기관	464	25.6	337	15.4
없음	692	38.2	852	38.9	독서단체/협회 등	282	15.6	85	3.9
					기타	109	6.0	68	3.1

그렇다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성인과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2018년도의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은 운영재정이 부족(45.6%)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이 미흡(29.0%)한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이 미흡(36.0%)하고 회원들의 참여도가 부족(31.9%)한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정부나 시도·지자체, 교육청(학교), 소속기관, 독서단체/협회 차원에서 도서의 지원(성인 42.4%, 청소년 37.9%)과 운영비 일부의 지원(성인 42.4%, 청소년 38.8%), 독서연계문화활동(성인 30.7%, 청소년 38.0%)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표 5〉 독서동아리 애로사항과 향후 지원 요구 사항

	애로사항				향후 지원 요구 사항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참여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미흡	706	39.0	788	36.0	도서 지원	878	48.5	830	37.9
회원들 참여도 부족	478	26.4	698	31.9	운영비일부	768	42.4	849	38.8
운영을 위한 재정 부족	780	45.6	624	28.5	독서연계문화활동	556	30.7	831	38.0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	382	21.1	503	23.0	강연, 교육	409	22.6	385	17.6
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 부족	467	25.8	390	17.8	관련 프로그램	306	16.9	547	25.0
적절한 강사 부재	232	12.8	304	13.9	시설 및 공간	282	15.6	171	7.8
도서선정의 어려움	183	10.1	252	11.5	강사/교사지원	197	10.9	376	17.2
소속된 기관의 관심 부족	123	6.8	120	5.5	도서선정 및 운영방법 교육	100	5.5	168	7.7

Ⅲ. A구 독서동아리 운영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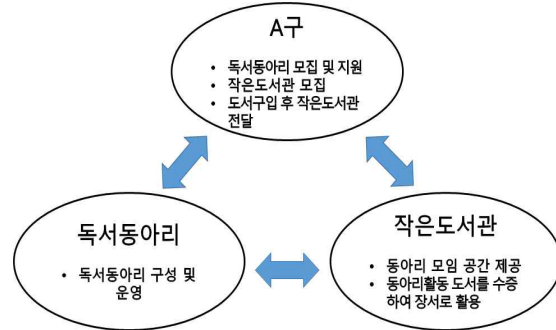
1.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의 사회적 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직장, 학교, 공공도서관 등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지원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A구의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해보았다.

먼저, 분석사례로 삼은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인 『책 같이가치』는 2019년 5월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동아리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제출한 〈동아리소개자료〉와 〈활동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5개 동아리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서모임을 진행하였는데, A구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원하였다. 첫째, 동아리 모임 때마다 각 10권(동아리별 총 100권)의 ‘도서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동아리 모임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앞서 살펴본 독서동아리 필수요소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지원도서는 동아리에서 선정한 도서목록을 A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동아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독서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였는데, 지역 내 작은도서관 중 미리 참여의사를 밝힌 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처럼 A구는 지자체, 지역 내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를 적절히 연계해줌으로써 서로

에게 긍정적 상승효과를 피하였다(〈그림 1〉 참조).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독특한 특징은 독서동아리 지원활동 이후에 보다 두드러진다. A구에서는 지원해 준 도서를 독서동아리 활동 후 회수하여 공간을 제공한 지역 작은도서관의 장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서동아리에서 함께 읽은 도서에 대해 〈한 줄 감상평〉과 별점을 의무적으로 작성하



〈그림 1〉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주제

게 하고, 이를 도서 표제지에 직접 기재하거나 띠지를 부착시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아리회원들과 도서관과의 친밀도를 높여 향후 자발적 도서관 활동가로서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에 참여한 소수의 회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도서관으로의 지원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동아리 운영현황 분석

2.1. 독서동아리 개요

A구에서 지원한 독서동아리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5개 독서동아리의 활동 개요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6〉과 같이 각 동아리는 적게는 6명 많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가장 많았다. 각 독서동아리의 활동(모임)주기는 격주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월 1회 모임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동아리 평균 활동시간은 1-2시간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6〉 A구 독서동아리 회원 및 활동 개요

	동아리 회원				동아리 활동	
	전체	남성	여성	연령	활동주기	평균 활동시간
A동아리	10명	·	10명	30-40대	월 1회	1-2시간
B동아리	10명	·	10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C동아리	7명	·	7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D동아리	15명	·	15명	30-40대	격주 1회	1-2시간
E동아리	9명	·	9명	40-5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F동아리	10명	·	10명	40-6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G동아리	10명	·	10명	40-50대	월 1회	1-2시간
H동아리	12명	·	12명	30-40대	격주 1회	1-2시간
I동아리	7명	4명	3명	50-60대	격주 1회	1-2시간
J동아리	10명	5명	5명	40-60대	격주 1회	2시간 이상
K동아리	7명	·	7명	40-50대	주 1회	1-2시간
L동아리	10명	2명	8명	60대	격주 1회	1-2시간
M동아리	7명	·	7명	30-40대	월 1회	2시간 이상
N동아리	7명	4명	3명	40대	월 1회	1-2시간
O동아리	6명	3명	3명	40-50대	월 1회	2시간 이상

활동도서관은 개별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는데, 동아리에 따라 적게는 5권에서 많게는 12권이였다. 또한 읽은 도서관의 주제 분야를 국립중앙도서관 분류기호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전체 도서관 중 절반에 가까운 44%의 도서관(141권 중 63권)이 문학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과학영역이 21%(30권), 철학영역이 15%(22권)로 뒤를 이었다(표 7) 참조). 이처럼 독서관련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5개의 동아리 중 1개의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에서 문학류 도서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독서관련 동아리 활동도서관 주제 분야

	총권수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A동아리	11권									11권	
B동아리	11권	1권		1권	2권					7권	
C동아리	10권		2권		1권					7권	
D동아리	10권		2권	1권			3권	1권		3권	
E동아리	11권		1권		3권	1권	1권			5권	
F동아리	10권		2권		1권		1권			6권	
G동아리	10권		2권		4권		1권			2권	1권
H동아리	10권		1권		1권		2권			4권	2권
I동아리	12권	1권	4권							7권	
J동아리	10권				9권		1권				
K동아리	10권	1권	3권		1권		1권	1권		3권	
L동아리	10권		2권		6권		1권			1권	
M동아리	5권						1권			4권	
N동아리	6권		1권		1권		1권			1권	1권
O동아리	5권	1권	2권		1권					2권	
전체	141권	4권	22권	2권	30권	1권	13권	2권		63권	4권

2.2. 독서동아리 운영현황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5개 동아리의 137명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약 3주간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동아리에 한해, 동일한 문항의 대면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① 독서동아리 활동 계기, ② 독서동아리 운영방식, ③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한 도서선정 방식, ④ 독서동아리 성과, ⑤ 독서동아리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8명의 회원이 응답하여, 49.6%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응답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통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7	10.3	연령	30대	7	10.3	
	여성	61	89.7		40대	33	48.5	
					50대	24	35.3	
	합계	68	100.0		60대	4	5.9	
				합계	68	100.0		

‘① 독서동아리 활동 계기’를 확인하기 위해, 독서동아리에 참여한 이유를 살펴보면 ‘독후활동을 통한 공유’(61.8%)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교류’(11.8%) 혹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기 위해서’(5.9%)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참조). 설문응답자들은 독서동아리 모집에 대한 정보를 주로 ‘지인 및 전문가’(60.3%)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다른 모임에서 과생되어 독서동아리가 구성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다.

<표 9> 독서동아리 활동 목적 및 독서동아리 모집정보 획득 방법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동아리 활동 목적	독서를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	14	20.6	모집 정보 획득 방법	구청(혹은 도서관) 게시판/안내자료	12	17.6
	독후활동을 통한 공유	42	61.8		지인/전문가 소개	41	60.3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교류	8	11.8		구청(혹은 도서관) 홈페이지	8	11.8
	취미생활 획득	4	5.9		기타	7	10.3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② 독서동아리 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방식을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대다수의 동아리가 선정도서를 ‘모두 읽고 온 후 토론하는 방식’(88.3%)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동아리에서는 ‘모여서 함께 낭독’(5.9%)하거나 ‘모두 읽고 온 후 글을 쓰는 방식’(4.4%)을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중복응답(n=127)으로 조사한 결과, 어떠한 자료를 읽을 것인지 선정하는 ‘도서선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31.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10> 독서동아리 활동방식 및 운영상의 어려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활동 방식	모여서 함께 낭독	4	5.9	운영상 어려움	시간부족	26	20.5
	한 명이 읽고 와서 강의	1	1.5		운영방법에 대한 무지	19	15.0
	모두 읽고 온 후 토론	60	88.3		강사(전문가)/ 리더의 부재	15	11.8
	모두 읽고 온 후 글쓰기	3	4.4		자료 선정시 참고자료 부족	40	31.5
	합계	68	100.0		재정(경제)적 문제	21	16.5
					관리 체계의 부재	6	4.7
			합계	127	100.0		

그렇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서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③ 동아리 활동시 함께 읽을 도서의 선정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동아리 회원들이 합의하에 선정’(66.2%)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리더(혹은 1명)가 알아서 선정’(20.6%)하거나 ‘회원별 1권씩 돌아가면서 추천’(13.2%)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도서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폭넓고 고른 주제 분야에 대한 고려’(70.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원들의 독서취향(선호도)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17.6% 정도 나타났다.

<표 11> 독서동아리 도서선정 방식 및 도서선정 기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 선정 방식	리더(혹은 1명)가 알아서 선정	14	20.6	도서 선정 기준	폭 넓고 고른 주제 분야	48	70.6
	참여 회원별 1권씩 추천	9	13.2		특정 주제 분야의 전문성	6	8.8
	회원들의 합의하에 선정	45	66.2		회원들의 독서취향(선호도)	12	17.6
	합계	68	100.0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성	2	2.9
					합계	68	100.0

④ 독서동아리 활동 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12>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는 긍정의 대답을 한 비율이 97.1%로 대부분의 설문응답자가 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동성고에 대해 중복응답(n=113)으로 조사한 결과,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32.7%)를 획득했고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32.7%)를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13.3%)을 획득하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독서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동아리 활동의 성과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동아리 만족도	매우그렇다	49	72.1	동아리 성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증가	37	32.7
	그렇다	17	25.0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향상	15	13.3
	보통	2	2.9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 역할	37	32.7
	합계	68	100.0		자기개발능력 향상	24	21.2
				합계	113	100.0	

한편, 동아리 활동 시 지원받은 도서와 제공된 공간이 동아리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특히,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비해 도서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독서동아리 지원의 도움 정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 제공	매우 도움	63	92.6	공간 제공	매우 도움	57	83.8
	조금 도움	5	7.4		조금 도움	6	8.8
	합계	68	100.0		보통	5	7.4
				합계	68	100.0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의 실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후 도서관 이용이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52.9%) 혹은 '매우 증가'(27.9%)하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한 독서동아리 활동이 도서관 이용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향후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멘토활동이나 도서관활동가 등과 같은 역할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다'(57.4%) 혹은 '무조건 한다'(26.5%)는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마지막으로, A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의 특징 중 한 부분이었던 '⑤ 독서동아리 활동 후 사회적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 선정시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

〈표 14〉 독서동아리 이후 도서관방문 증가정도 및 도서관활동 참여 의향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관 방문 증가 정도	매우 증가	19	27.9	향후 도서관 활동 참여 의향	무조건 함	18	26.5
	조금 증가	36	52.9		가능하면 함	39	57.4
	보통	9	13.2		보통	9	13.2
	별로 증가 안함	3	4.4		가능하면안함	2	2.9
	전혀 증가 안함	1	1.5		합계	68	100.0
	합계	68	100.0				

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조금 고민’(41.5%) 혹은 ‘매우 고민’(26.2%)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10% 가량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정된 도서가 도서관장서로서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85%의 응답자가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표 15〉 도서관 장서로서의 활용에 대한 고민 정도와 적합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한 고민	매우 고민	17	26.2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도	매우 적합	43	63.2
	조금 고민	27	41.5		조금 적합	15	22.1
	보통	15	23.1		보통	10	14.7
	고민하지 않음	6	9.2		합계	68	100.0
	합계	65	100.0				

또한 독서동아리 활동 중 생산한 〈한 줄 감상평〉 작성 시 어떠한 점을 중요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읽은 느낌을 공유하는 것’(86.8%)을 중시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전달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이 다른 이용자들의 도서 선정에 얼마나 유용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45.6%)되거나 ‘매우 도움’(38.2%)될 것이라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한줄감상평 작성시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과 유용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한줄감상평 작성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	읽은느낌의공유	59	86.8	한줄감상평 유용성	매우도움	26	38.2
	생각할거리전달	9	13.2		조금도움	31	45.6
	합계	68	100.0		보통	10	14.7
					매우도움안됨	1	1.5
				합계	68	100.0	

IV. 독서동아리 운영전략 모색

1.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A구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15개 독서동아리는 동아리 모집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되짚어 보면 ‘독서동아리를 시작한 목적’(독후활동을 통한 정보 및 감정공유)과 ‘동아리 활동 후 얻은 성과’(정보획득 및 인적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 획득)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7.1%의 설문응답자가 긍정적 만족도를 표현하였으며, 도서 및 공간제공이라는 A구의 동아리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회원들이 독서동아리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A구의 동아리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독서동아리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도만은 아니다. 15개의 독서동아리는 기본요소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해 준 A구의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족도보다는 동아리활동 후 도서관방문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도서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보다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지자체 지원을 통한 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과이며,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동아리를 통해 높아진 커뮤니티의 밀착도는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구의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응답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동아리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더해 ‘향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개방형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8명 중 33명이 응답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독서동아리가 약 3년 정도 활동하면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져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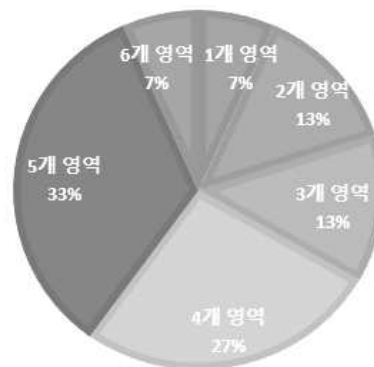
가장 일반적"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즉,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독서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이자 '계기'일 뿐 사회적 독서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궁극적인 지원방법은 아님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19). 즉, 대부분의 독서동아리 지원이 일시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독서동아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독서동아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자료 선정시 참고자료의 부족'이라는 조사결과는 이 연구에서 밝혀낸 독특한 응답이자 주목할 만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전국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떠올려 보자(앞의 <표 4> 참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참여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운영을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음을 상기해보면 도서 선정 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30%를 상회한다는 이 조사결과는 매우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독서동아리가 도서관 공간을 제공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논외로 하였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향후 독서동아리가 외형을 갖추었을 때, 즉 독서동아리로서의 기본요소들을 갖추어 기초 인프라가 확보되고 나면, 독서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동아리가 '외형적 자생력'을 갖추고 나면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한 '내용적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 지원의 형태가 함께 읽을 좋은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의 형태여야 하며, 단순히 도서목록의 지원보다는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독서동아리 지원이 소수의 동아리 회원만이 아닌 지역주민 다수에게 긍정적 기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A구에서 사회기여방법으로 시도하였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지원방법의 효과검증만이 사회기여의 진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독서동아리에서 선정한 도서가 도서관을 위한 양질의 장서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아리 회원이 선정한 "도서가 도서관장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85%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지만 "선정과정에서 도서관장서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본인들이 선정한 자료에 대해 과도하게 만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장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독서동아리에서 선정한 장서의 특징을 살펴 적합성을 미루어 짐작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 도서선정시 '폭 넓고 고른 주제 분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림 2>에서와 같이 실제 선정된 도서의 주제분야를 조사한 결과, KDC 10개 분야 중 5개 분야의 도서를 활용한 동아리가 33%였으며, 4개 분야의 도서를 활용한 동아리가 27%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동아리가 4~5개 분야의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종교, 자연과학, 예술, 언어 4개의 분야는 1~2개 동아리에서만 선정함으로써 독서동아리에서 잘 다루지지 않는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⁴⁾.



<그림 2> 도서 주제영역별 동아리 수

이에 더해 ‘도서의 중복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개 동아리에서 선정한 총 141권의 도서 중 동일한 도서는 14

종으로, 10% 정도의 상당한 중복성을 보였다. 이들 도서는 『여행의 이유』,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어디서 살 것인가』 등과 같이 독서유행에 민감한 책들로, 심지어 15개 동아리 중 5개 동아리에서 중복적으로 선정한 도서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1종의 도서를 동아리별로 10권씩 구입했다는 전제하에 대략 계산해보면 동일한 도서를 50권 구입했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도출되며, 과연 이렇게 중복적이고 특정 영역에 편중된 도서가 지역의 작은도서관 장서에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동아리 회원들이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이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료선정 과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답은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내용적 검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도서를 대상으로 C, E, K동아리 회원이 작성한 <한 줄 감상평>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C동아리 회원은 5줄로 작성된 장문의 내용 요약과 감상평을 동시에 기술하였고, E동아리 회원은 책 내용 중 가슴에 와 닿는 한 문장을 선택하였으며, K동아리 회원은 읽은 소감위주로 작성하여 세 개의 <한 줄 감상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 줄 감상평> 작성에 정답이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도서관이용자의 책 선정 시 도움이 되는 참고도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4) 독서동아리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독서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도, 시, 소설, 에세이 등은 물론 고전과 현대서적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선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ALA 2019).

〈표 17〉 동일한 도서에 대한 〈한 줄 감상평〉 비교

C동아리 '가' 회원의 <한 줄 감상평>	E동아리 '나' 회원의 <한 줄 감상평>	K동아리 '다' 회원의 <한 줄 감상평>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여행을 안갈 줄 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작가가 늘 정돈된 호텔에서 쉬는 즐거움을 이야기 할 때는 가정주부로서 너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정주부로서 돌봐야 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여행지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도 여행의 의미가 있다.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경험 때문이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장소와 공기를 맞이하는 만찬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처럼 독서동아리 지원을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확장을 시도해 본 결과, 작은도서관 장서의 확충이라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독서동아리 지원이 1차적 목적인 상황에서 그 결과물을 도서관에 맞추다보니 편중된 장서구성 문제나 정체되지 않은 〈한 줄 감상평〉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전략

지금까지 A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짚어 본 결과, 동아리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19년에 진행되었던 독서동아리 활동의 경험에 근거하여 향후 독서동아리 지원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먼저,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는 기초적인 인프라만 확보되어도 충분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아리 기본요소를 갖추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도 일부의 동아리를 선정·제공하다보니,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서동아리 중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동아리가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고르고 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풀뿌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다 많은 독서동아리들이 기본요소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지원의 모습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전체 독서동아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격이 유사한 혹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유사한 독서동아리의 연계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 내 독서동아리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연계관계를 기반으로 도서를 지원한다면 도서의 중복적인 지원문제와 더불어 재정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동아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독서동아리의 시작단계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독서동아리 지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참여 동아리에게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였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인 독서동아리 지원 및 육성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서동아리의 운영시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단계별 변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독서동아리를 처음 모집하여 운영을 막 시작한 ‘시작단계의 동아리’와 독서동아리만의 규칙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운영을 정례화한 ‘중간단계의 동아리’는 구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 후 지원체계를 상세화 할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위해 그간 운영해온 독서동아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동아리별 노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 작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서동아리 운영시 도서선정 방법 등의 ‘동아리 운영을 위한 내용적 지원’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는 동아리 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서가 없었다는 원인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자,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여기에는 독서동아리 모임의 운영방식, 자료선정 방식은 물론이고, 토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법, 리더를 선정하는 적절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때 다양한 독서동아리의 운영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증된 수준의 전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주체는 동아리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독서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지역 공공도서관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실제 국외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는 독서동아리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서에 대해 토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ALA 2019). 가령, <표 18>은 독서동아리를 운영할 때 권장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이다.

<표 18> ALA에서 제공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일부

= 회의형식

- ① 회의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0-45분 — 사회적 시간(social time)

15-20분 — 동아리 운영 문제(club administrative matters)

60-90분 — 독서토론(book discussion)

= 토론개최

- ① 리더가 있을 때: 책을 선택한 사람이나 그날 독서동아리 모임을 주최한 사람을 리더로 임명하며, 때로는 유급 또는 무급의 외부 진행자(문학 관련 교사나 사서)를 초대할 것

- ② 리더가 없을 때: 동아리 회원이 책을 읽은 경험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색인카드(index card)를 나누고 회원들 모두에게 읽은 책과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을 쓰도록 할 것. 그런 다음 토론할 하나 이상의 질문이나 의견을 선택할 것
-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협업하여 독서동아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앞장선다면 독서동아리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동아리회원들의 지적성장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급격한 개인화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무너지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독서문화 형성이 라는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독서가 아닌 타인과 함께 읽고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가 강조됨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독서동아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여러 지적에 따라, 독서동아리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자체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한 독서동아리 역시 소속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즉,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및 인적교류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점은 독서동아리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증가는 물론 공동체의 결속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더해,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동아리에 대한 만족도 이상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향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항목에 대해 각종 요구사항을 기술한 회원들도 있었던 반면, 일부의 응답자들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독서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준 기회”이며 “현재의 지원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독서동아리 운영에 많은 힘이 되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독서동아리 활동의 첫 발을 떼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독서동아리 지원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낮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으며, 향후 독서동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존재한다. 독서동아리란 자고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전제로 운영되는 독서모임이기 때문에 참여 및 운영에 있어 강제성을 떨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모임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서동아리의 지속적 운영을 도와줄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독서동아리의 운영단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운영해야 하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워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독서동아리가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A구를 사례로 살펴보았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가 이러한 독서동아리 지원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김라연. 2007. 모두 독서 활동에서의 인지적 독서 행동 변화 양상. 『독서연구』, 17: 83-108.
김민숙, 박성수. 2015. 독자반응이론 및 이야기 구조 기반 중학교 영어 학습자 문학 읽기지도 모형개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783-812.
- 김혜진. 2009. 『독서 클럽 활동이 독서 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 설계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방미영. 2013. 『교사 독서동아리 운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안영이. 2010. 『독서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읽기 동기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전공.
- 오지은. 2018. 독서동아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20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대회』. 2018년 11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5-134.
- 이용준. 2014.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 31: 165-193.
- 임영환. 2013. 『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경험에 관한 졸업생들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조현행. 2015. 『모듬 독서 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독서학과.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황석순. 2015.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 ALA. 2019. *Book Discussion Groups: Quick Start Guide*. <<https://libguides.ala.org/bookdiscussion-groups/startguide>> [cited 2020. 5. 5].
- Hoffert, Barbara. 2019. *The Book Club Experience*. <<https://www.libraryjournal.com/?detailStory=1j190401bookclubs>> [cited 2020. 5. 5].
- Lombardi, Esther. 2019. *What is a Book Club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thoughtco.com/what-is-a-book-club-738891>> [cited 2020. 3. 16].
- Newcastle Region Library. *Tips for Beginner Book Clubbers* <https://www.newcastle.nsw.gov.au/Newcastle/media/Documents/Library/Book_Club_A5_Booklet_3.pdf> [cited 2020. 3. 16].
- Notaras, Melanie. 2018. *Reading Clubs & Book Clubs — What's the Difference?* <https://medium.com/@sales_53852/reading-clubs-book-clubs-whats-the-difference-101cc24121ae> [cited 2020. 3. 16].
- The Reading Agency. 2004. *A National Public Library Development Programme for Reading Groups*. The Reading Agency.
- 坂本一郎. 1971. 『現代の読書心理学』. 読書: 金子書房.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Young Yi, 2010. *The Middle School Reading Club Activities' Impact on the Reading Motivation and Comprehension*, M. 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Bang, Mee Yeong, 2013. *Research on Ways for Teachers to Operate Reading Club*, M. A. thesis, Daejin University.
- Cho, Hyun Haeung, 2015. *Influence of Book Club Activity on Ego Integrity of Elderly*, M. A.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Hwan, Seok-soon, 2015. *A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Reading Circle*, M. A. thesis, Dong-eui University.
- Kim, Hyu Jin, 2009. *Effects of Reading Club Activities on Forming Reading Habits*, M. A. thesis, Chonbuk University.
- Kim, Min Sook and Seong Soo Park, 2015. Development of an English Language Learner Literature Reading Teaching Model Based on Reader-Response and Story Structure in Middle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1): 783-812.
- Kim, Ra Yeon, 2007. "A Study of the Aspects of Changes in Cognitive Reading Behavior during Book Club Activ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7: 83-108.
-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0. *Terminolog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 Lee, Yong Jun, 2014. "The Study of Promotion Policies for the Workplace Book clubs and Current Condition of the Book Clubs in Korea,"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1: 165-193.
- Lim, Young Hwan, 2013. *A Study on the High School Graduates' Perception of the Book Club Experience*, M. A.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